

<동정자료>

## 김현미 장관, “스마트 물류 확산이 곧 양질의 일자리”

### 물류·택배업계 간담회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물류 중요성 강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4일(금) 15:00, 대한상공회의소에서 ‘물류·택배업계 간담회’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.
  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 물류산업이 나아가할 방향을 고민하고,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할 ‘시점’이라고 전할 계획이다.
-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익 천일정기화물 회장 등 물류 분야 대·중소기업 대표들이 참가해 ‘스마트 물류 및 택배서비스 발전방안’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진행한다.
  - 김 장관은 “첨단기술이 융·복합된 스마트 물류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필요”하다면서, “특히, 물류·택배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은 과로·과속·과적 운행을 줄이고,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운전자 뿐 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”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김 장관은 “물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新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면서, “앞으로도 물류 및 택배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,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”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.

2018. 5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시기/장소 : '18. 5. 4(금) 15:00 / 대한상의 챔버라운지(20층)
- 참석자 : 총 21명
  - (국토부 2) 장관님, 물류정책관
  - \* (배석) 물류정책과장(사회), 물류시설정보과장, 물류산업과장
- < 업계(19) >
  - (협회 등 4) 권오경(인하대 교수), 서덕호(대한상의 유통물류원장), 서상범(KOTI 물류본부장), 김범준(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) 등
  - (업체 15) 박재억(천일정기화물), 최원혁(판토스), 김문규(농협물류), 류경표(한진), 백문현(경동물류), 이상근(삼영물류) 등
- 주제발표 : 4차산업 혁명시대의 물류 대응방안(KOTI 본부장)
- 논의사항 : 물류혁신, 종사자 처우개선, 일자리 창출 등 업계 추진상황 및 애로·건의사항 청취

□ **시간계획**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5:00~15:05	'5	개식 및 참석자 소개	(사회) 물류정책과장
15:05~15:10	'5	모두말씀	장관님
15:10~15:15	'5	인사말	박재억 천일정기화물
15:15~15:25	'10	주제 발표(4차산업혁명시대의 물류)	KOTI 서상범
15:25~16:10	'45	주요의제 논의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	협회장, 기업대표
16:10~16:20	'10	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	장관님(물류정책관)
16:20~16:25	'5	마무리 말씀	장관님
16:25~16:30	'5	기념 촬영	참석자